

2023년 7월 광안리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

(단위: 명)

분 류	원데이터		30분 이상 체류
측정구간	남천동~광안동~민락동	광남로·광안해변로 일대	광남로·광안해변로 일대
측정센서	50개소	18개소	18개소
월 유동인구	4,150,718	4,090,355	1,710,762
주말(토, 일) 유동인구 (월 전체 대비)	1,569,418 (37.8%)	1,710,762 (41.8%)	988,297 (57.8%)

- 22년 동월 대비 유동인구 감소(-24.4%)
 - ☞ 장마 및 집중호우로 강수일, 강수량 증가하여 유동인구 감소(22년: 8일/145mm→23년: 18일/702mm)
- 원데이터 기준 최고 방문일: 7. 29.(토) 247,440명
- 30분 이상 체류 기준 최고 방문일: 7. 29.(토) 141,930명
 - ☞ '2023 나이트레이스 인 부산' 개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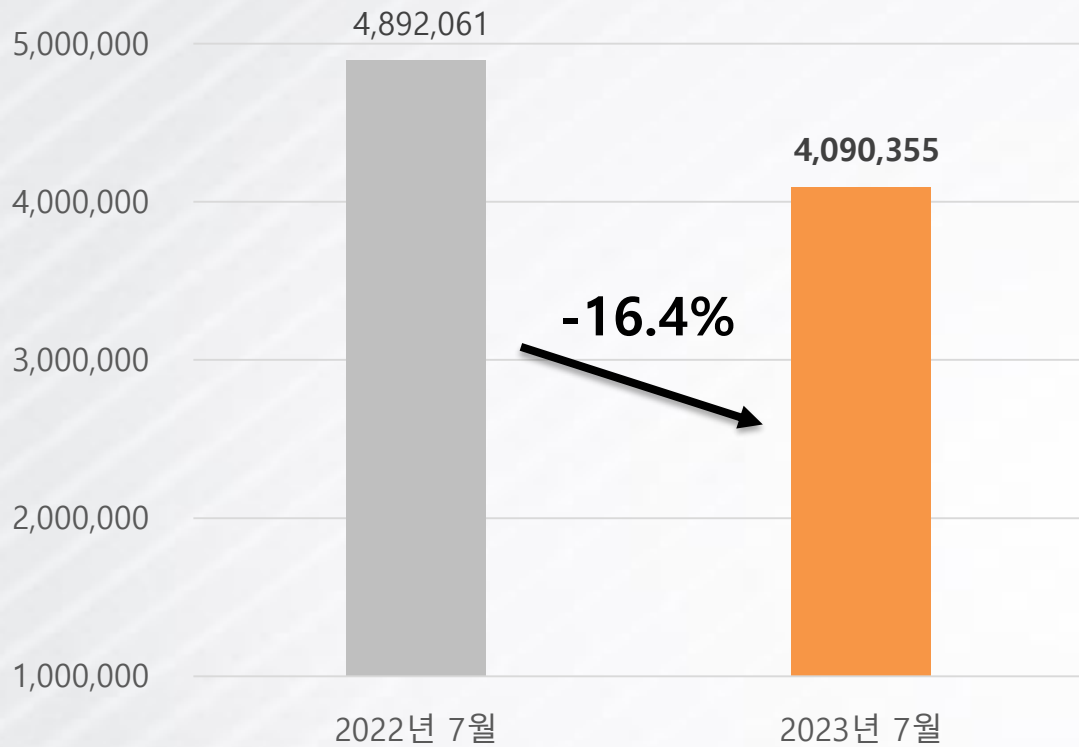
광안리 해변 유동인구 분석

(광남로, 광안해변로 일대 센서 18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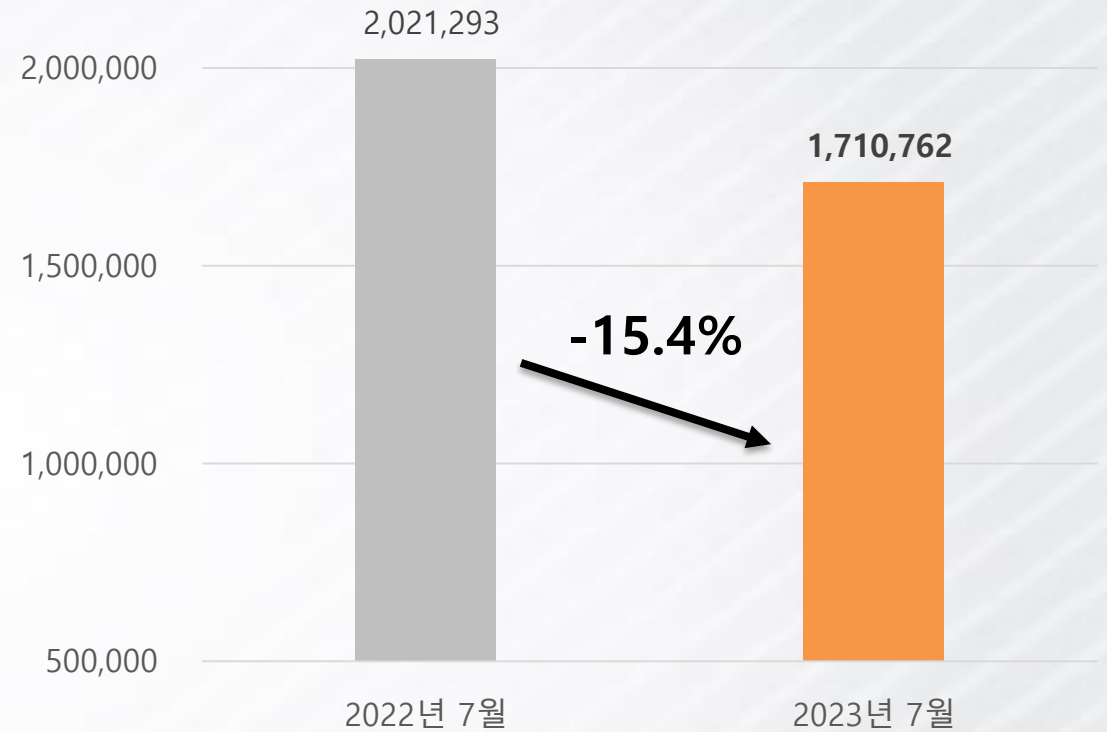
광안리 해변 유동인구 센서 수집 구간(18개소)



원데이터 | 2023. 7월 광안리 해변 유동인구



월간 유동인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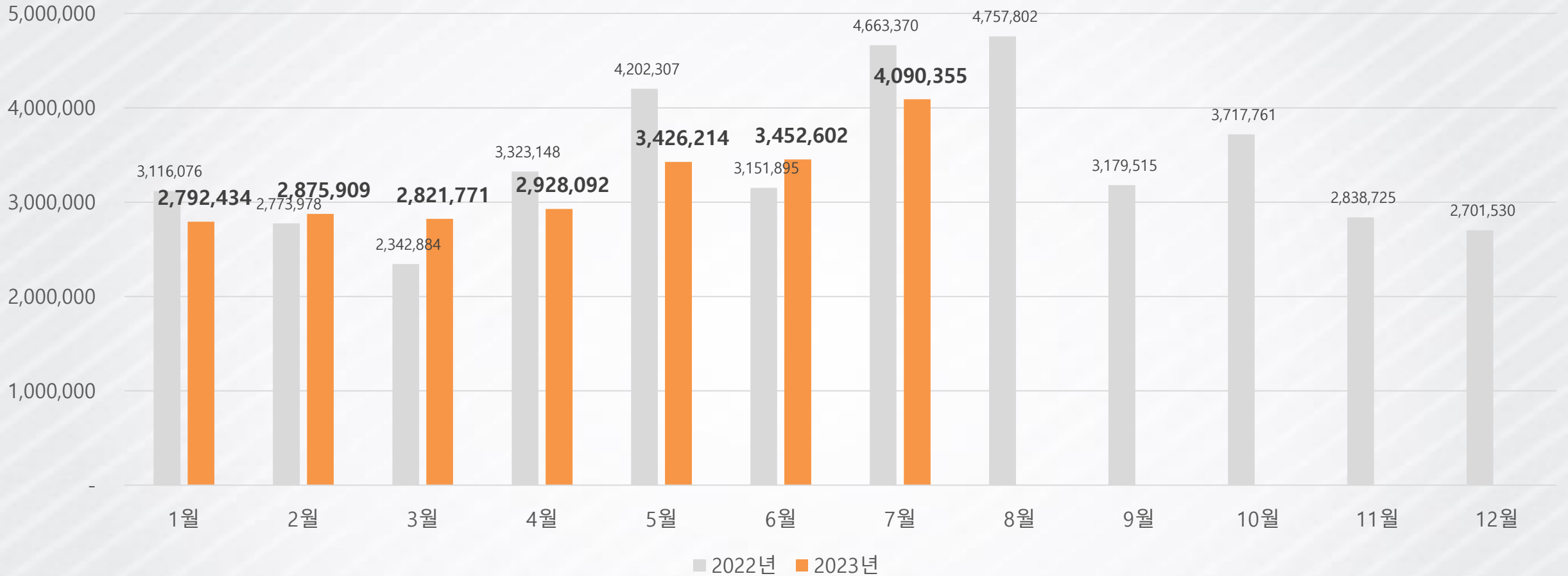


주말(토·일) 유동인구

· 전년 동월대비 월간 유동인구 감소(-16.4%), 주말 유동인구 감소(-15.4%)

※ 장마 및 집중호우로 전년 동월대비 강수일, 강수량 증가하여 유동인구 감소(22년: 8일/145mm→23년: 18일/702m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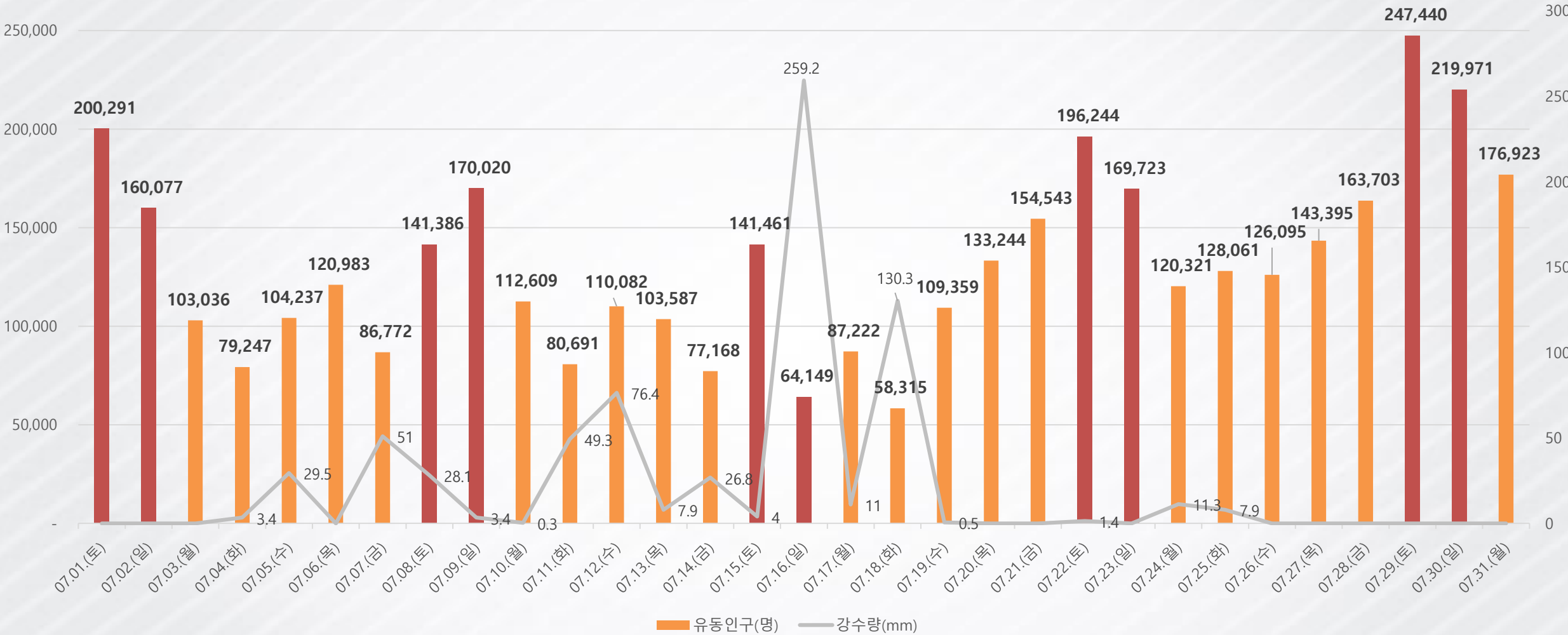
원데이터 | 2023 광안리 해변 월별 유동인구 현황



- 2023년 광안리 해변 유동인구는 1월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나,
- 23년 4, 5월은 22년 동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유동인구의 폭발적 증가(기저효과) 및 강수일 증가로 전년대비 유동인구 감소
- 23년 7월은 장마 및 집중호우로 인한 강수일·강수량 증가로 전년대비 유동인구 감소



원데이터 | 2023. 7월 광안리 해변(18개소) 유동인구 현황



- 유동인구 최고 방문일: 7. 29.(토) 247,440명
- 👉 '2023 나이트레이스 인 부산' 행사 개최

원데이터 | 광안리 해변 주말 유동인구 현황(토,일)



· 해수욕장 개장 및 '나이트레이스 인 부산' 행사 개최로 전월대비 광안리 해변 주말 유동인구 증가(22%)



30분 이상 데이터 | 2023. 7월 광안리 해변 유동인구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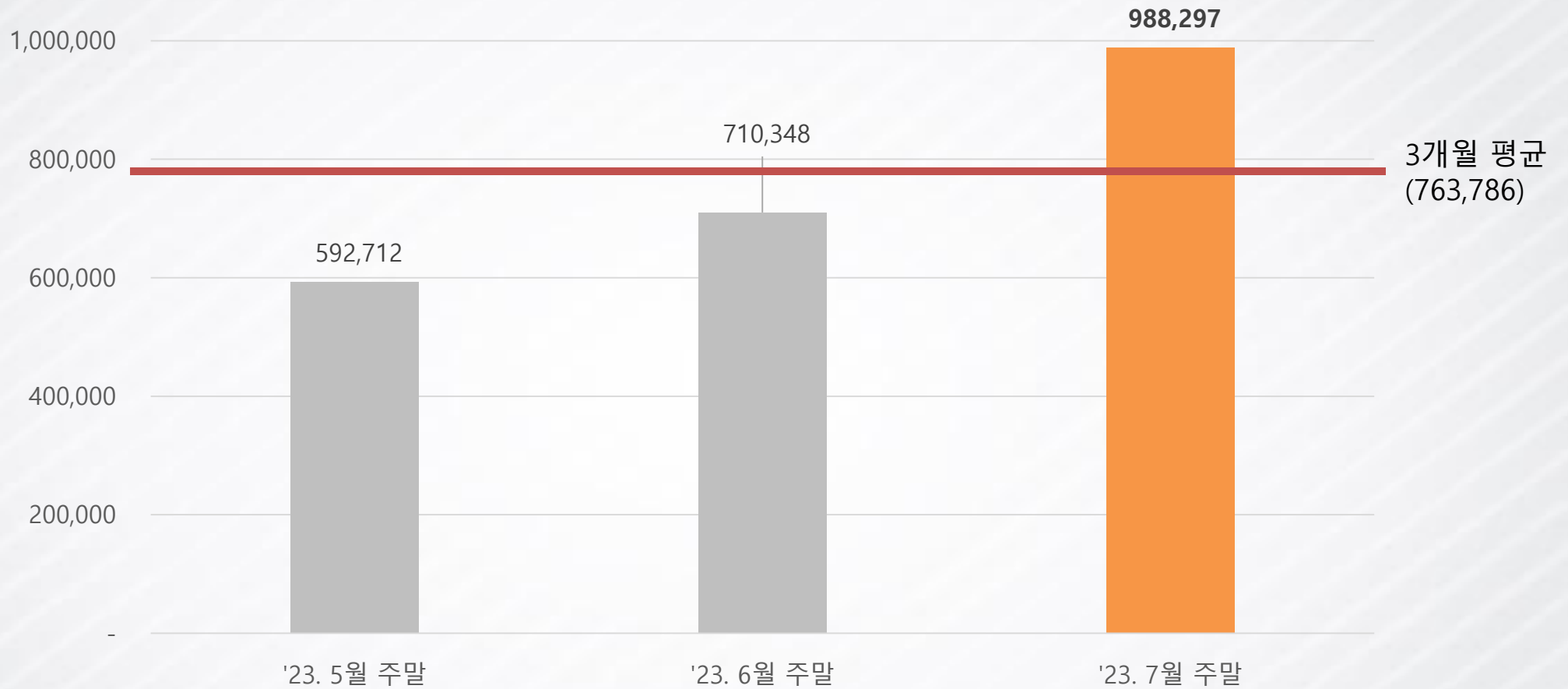
- 수집조건 : 30분 이상 체류, 24시간
- 분석구간 : 광안리 해변(광남로, 광안해변로 인근) 18개 센서



· 유동인구 최고 방문일: 7. 29.(토) 141,930명

👉 '2023 나이트레이스 인 부산' 행사 개최

30분 이상 데이터 | 2023. 7월 광안리 해변 주말 유동인구 현황(토,일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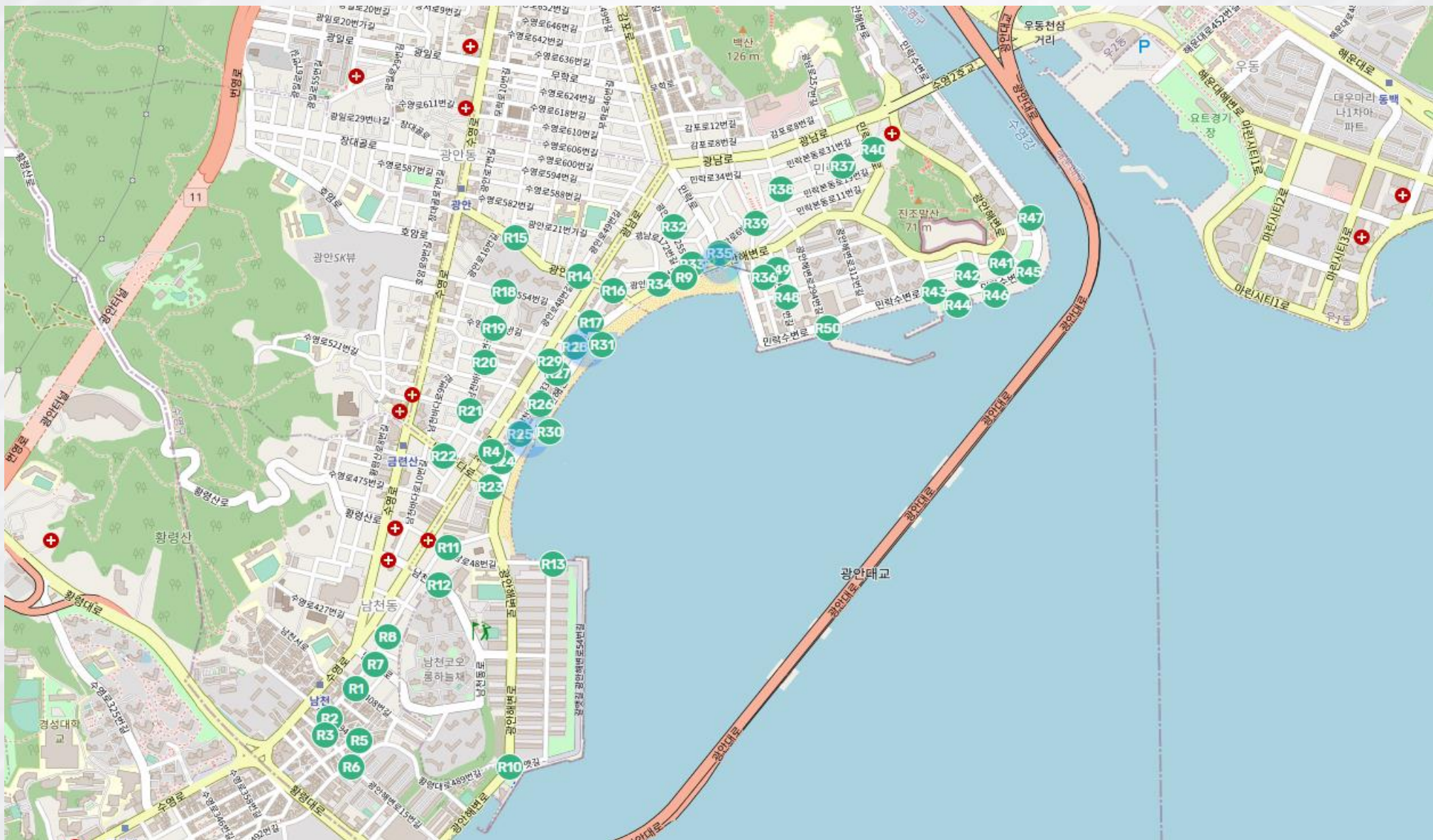
· 해수욕장 개장 및 '나이트레이스 인 부산' 행사 개최로 전월대비 광안리 해변 30분 이상 체류인구 증가(39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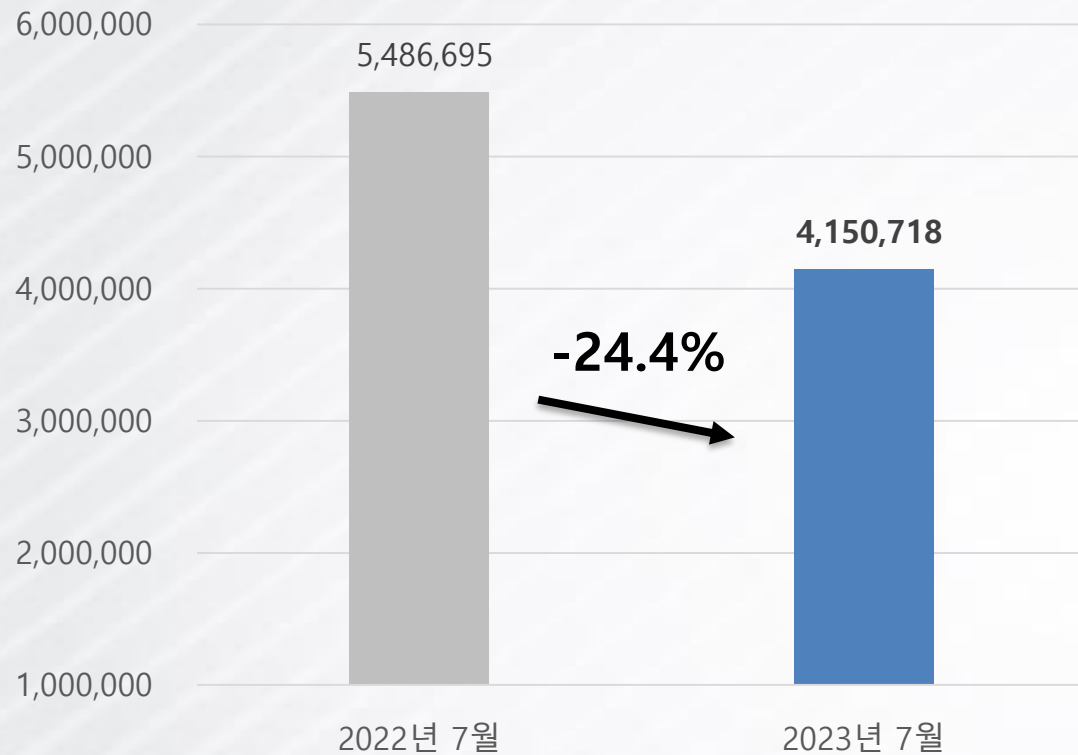
광안리 일원 유동인구 분석

(남천동~광안동~민락동 센서 50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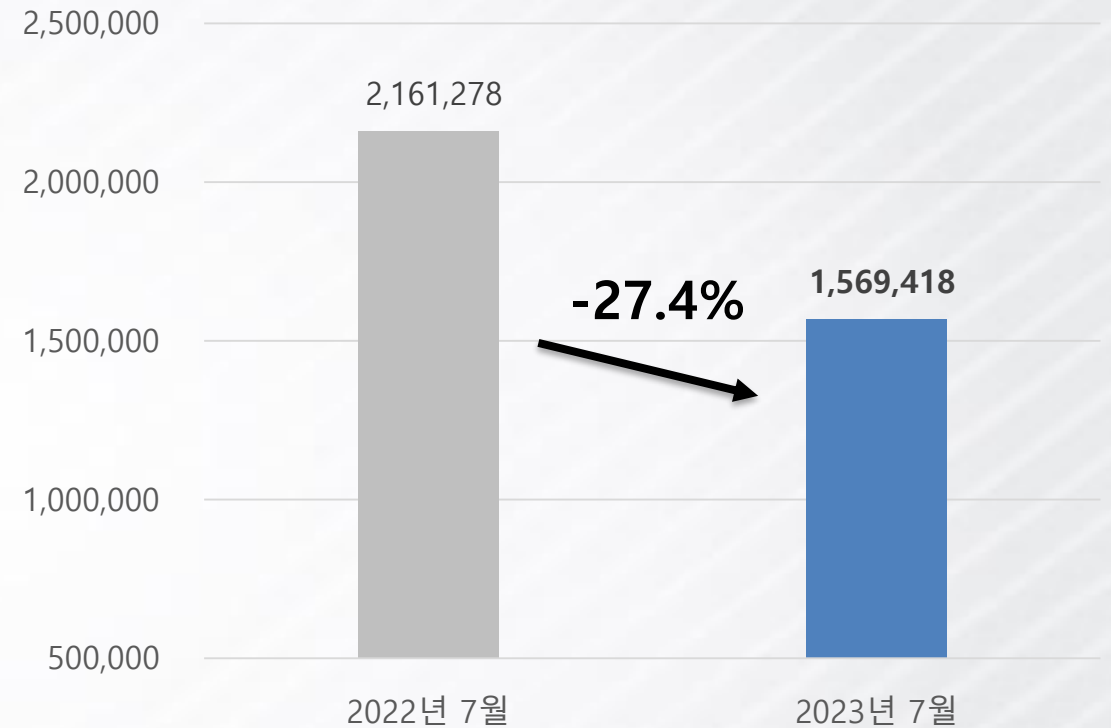
광안리 일원 유동인구 센서 수집 구간(50개소)



원데이터 | 2023. 7월 광안리 전체 전년 동월 비교분석



월간 유동인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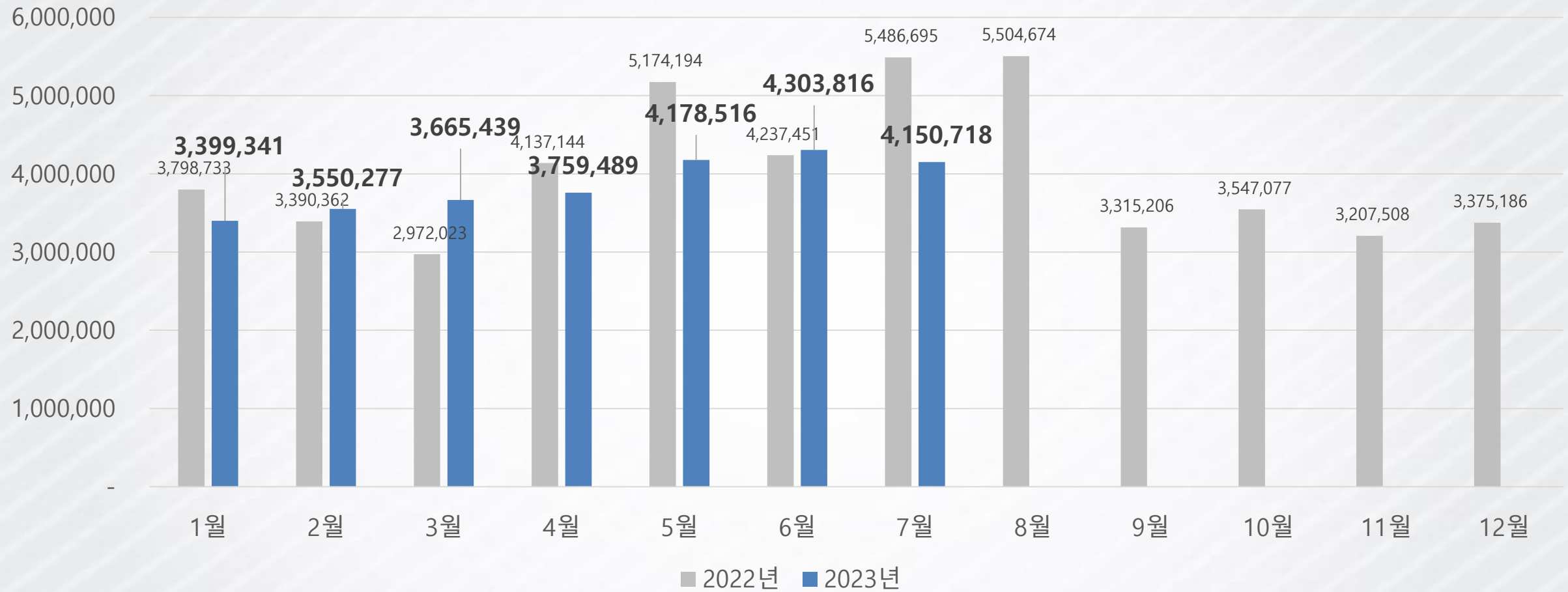


주말(토·일) 유동인구

· 전년 동월대비 월간 유동인구 감소(-24.4%), 주말 유동인구 감소(-27.4%)

※ 장마 및 집중호우로 전년 동월대비 강수일, 강수량 증가하여 유동인구 감소(22년: 8일/145mm→23년: 18일/702mm)

원데이터 | 광안리 전체 월별 유동인구 현황



- 23년 4, 5월은 22년 동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유동인구의 폭발적 증가(기저효과)및 강수일 증가로 전년대비 유동인구 감소
- 23년 7월은 장마 및 집중호우로 인한 강수일·강수량 증가로 전년대비 유동인구 감소



원데이터 | 광안리 전체 7월 유동인구 현황



원데이터 | 광안리 전체 주말 유동인구 현황(토, 일)



· 광안리 전체(50개소) 주말 유동인구 증가추세

☞ 해수욕장 개장 및 드론쇼, 발코니음악회, '나이트레이스 인 부산' 등 행사로 주말 유동인구 증가

